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시숲 내 아파트 건설 중단해야 하는 이유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 범위 이내에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도시숲 휴식공간이 그만큼 줄어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인·허가 절차에 앞서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승인권자인 제주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고,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계획 수립권자이기도 하다. 사업시행자이면서 동시에 승인기관인 것이다.

발생할 환경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제시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식물상 분야와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분야의 춘계·하계조사도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생략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에서 위 분야를 모두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했으면서도 봄철, 여름철 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필수적인 환경 현황조사도 제외해 사업 절차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결과로 가장 수혜를 볼 대상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이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도시숲의 이용자인 제주시민이고,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이다. 오름과 하천이 이어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훼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편집국 25시

지난해보다 나은 교육현장 기대



오은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eioh@halla.com

태 속 기대를 낮춘 관대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올해는 다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 않을까.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보다 나은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총괄 정책이 수립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학기 초 학교폭력 급증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6%(723명)로 전년(2.2%, 1214명)보다 감소했다. 일각에선 대면수업 비중이 작아지면서 응답률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뉴스-in

제주항 중장기 발전 협의체 구성 주목

도·개발공사·JDC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개발공사 제주항 중장기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결정해 주목. 이들 3개 기관은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

2001년부터 꾸준한 후원

○...제주시가 이달 10일까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나눔운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익명을 요구하는 독자가로부터 백미 10kg 1000포를 기탁받아 컨테이너 가구 및 저소득가구에 전달.

시에 따르면 이 독자는 2001년부터 꾸준한 후원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후원만도 10kg 백미 2만 6800포, 금액으로는 8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점인 이윤형 기자

익명 독자가들 '은정의 손길'

○...설명절을 앞두고 익명의 독자들이 잇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은정의 손길을 전하며 훈훈한 정감을 전달.

성산읍은 3일 "익명의 자활근로자가 사랑의 저금통(현금 3만8210원)을 기탁했다"며 "그 분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인.

최근 천지동주민센터에도 익명의 기부천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써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하며 잔잔한 감동을 선물. 백귀탁 기자

사설

공유재산 활용 못해 혈세만 낭비하나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재정이 넉넉했나 싶을 때가 많다. 굳게 말하면 '돈이 썩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목적을 갖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수십 수백억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있으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화에술재단이 문화예술인을 위해 매입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제주경실련은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어디 이뿐만인가.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제주도가 2016년 공유자산 확보 목적으로 415억원에 매입했으나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유재산도 있다. 평택항(경기도) 제주종합물류센터다. 2013년 48억원에 들어 건립한 이 물류센터는 헬값(17억여원)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으로 인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이러니 혈세를 '공돈'처럼 평평 쓰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 습지, 강력한 보전대책 왜 미적대나

세계 습지의 날(2일)을 맞아 제주도 습지 보전대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내 탐사르 지정 습지나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습지 등을 빼고 많은 습지 보호장치가 전무한 현실이 그 이유다. 제주가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한 형태에다 생태의 보고를 자랑하는 습지를 지금처럼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

세계 습지의 날(2일)을 맞아 제주도 습지 보전대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내 탐사르 지정 습지나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습지 등을 빼고 많은 습지 보호장치가 전무한 현실이 그 이유다.

습지는 물을 담는 그릇이자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된다. 인류와 자연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정화, 생물서식공간, 자연재해 조절 등 여러 역할을 하기에 보전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습지는 물을 담는 그릇이자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된다. 인류와 자연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정화, 생물서식공간, 자연재해 조절 등 여러 역할을 하기에 보전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습지보전정책은 날이 갈수록 강화돼 가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작년말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해 습지 정의에 호수 못 하구예다 하천을 추가해 상당히 많은 하천습지 보전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습지 보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도 지의 탄소저장기능을 통한 보전가치 제조명, 생물 다양성 감소와 재해 등의 문제를 습지에 의한 해결

습지는 물을 담는 그릇이자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된다. 인류와 자연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정화, 생물서식공간, 자연재해 조절 등 여러 역할을 하기에 보전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습지는 물을 담는 그릇이자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된다. 인류와 자연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정화, 생물서식공간, 자연재해 조절 등 여러 역할을 하기에 보전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감사의 말씀
이번 지회 어머니 경주집세 영재(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2월 4일
남편 허순철
아들 허석 며느리 박미경
허근 오정미
허승 김미화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김진양(1982. 8. 16생)
최후주소: 제주시 다량36길 32-6, 101호(노형동, 전원빌라)
상기자는 2020년 11월 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1월 27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74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제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락처: 제주시 다량36길 32-6, 101호(노형동, 전원빌라)
2021년 2월 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승효, 강리원, 강은우, 강리우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891 특수협박등
피고인 홍태의
위 피고인은 특수협박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2. 3.
판사 박준석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2차)
당 회사는 2021년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일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농업회사법인 제주조은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11길 5-4, 406호(노형동)
청산인 문정자
청산인 김선희